

도시 보행자가로의 체험에 있어서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덕수궁길, 인사동길, 명동길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영재* · 김한배**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도시 내 이상적인 가로공간은 단절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연속된 공간이며, 구성요소의 집합체라기보다는 총체적인 경험의 공간이다. 이러한 환경은 도시를 체험하는 인간과 도시를 구성하는 물리적 환경의 상호작용을 극대화 하는 환경을 말한다. 가로공간을 체험 또는 경험한다는 것은 무의식적인 도보행위가 아닌 주변 환경과 소통하고 공간에 흥미로움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성장과 더불어 진행된 대부분의 도시프로젝트는 경제성을 기저로 한 물리적인 양적 측면의 증가에 치중한 계획으로 도시계획에 포함된 가로는 획일적인 형태를 가지며, 보행자에게 별다른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 보행자가로를 구성하고 활성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관련 요소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물리적인 측면¹⁾은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적 환경을 중시하는 물리적인 측면과 관련된 만족스러운 보행의 구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는 유럽중세도시의 형태와 18세기 경험주의로부터 비롯된 경관디자인의 ‘픽취레스크’의 특성이 도시 분야에 적용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Issacs, 2000). 환경미학에 대한 최근 이론들과 연계된 ‘픽취레스크’ 미적개념의 지속성은 ‘어번픽취레스크(Urban Picturesque)²⁾’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Issacs, 2000). 조경의 양식으로 태동하게 된 ‘픽취레스크’가 어떻게 ‘어번픽취레스크’ 개념으로 발전되었는지 그리고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이 보행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또한, 기존의 ‘어번픽취레스크’ 개념의 입장에서 가로를 분석한 것은 시각적인 환경과 관련된 물리적인 측면에 국한되었지만, 도시 내 가로는 다양한 용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활동적 측면³⁾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픽취레스크’의 개념과 ‘어번픽취레스크’

개념의 등장배경 및 내용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어번픽취레스크’ 개념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실제 우리나라 보행가로에서 미적 흥미로움을 유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각적 환경위주의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활동적 측면을 같이 고려하여 도시 가로설계에서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의 유용함과 적용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와 대상지 연구로 나뉘어진다.

이론적 연구는 크게 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픽취레스크’한 가로형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가로패턴의 변화과정과 보행체험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픽취레스크’의 미적 개념과 경관적 특성을 살펴보고, ‘어번픽취레스크’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시도한 Issacs(2000)의 논문을 토대로 개념과 특성의 내용정리를 하였다.

대상지 연구는 ‘어번픽취레스크’의 개념을 포함하며 보행자 중심의 가로라고 판단되어지는 가로를 사례로 물리적·활동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II. 이론적 연구

1. 가로공간의 변화와 보행체험의 중요성

최초의 가로는 전통적인 도시공간(부정형 패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자연발생적으로 구축되었으며, 각 건축물이 도시블록을 구성하고, 도시블록은 외부 가로공간을 규정하고 형성하였다. 이에 반해 모더니즘 시대의 도시공간(격자형 패턴)은 녹지에 둘러싸인 개별 건축에 의해 형성되었다(Carmona, 2003). 한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규칙적인 격자패턴의 단조로움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곡선 및 불규칙한 형태(‘픽취레스크’한 디자인)의 가로패턴을 주장하였다. 이 패턴은 시각적으로 닫힌 느낌을 주는 공간의 연속성을 연출하여 새로이 시작되는 공간

에 시각적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흥미로운 공간이었다(Carmona, 2003). 이는 보행의 안정성과 더불어 보행을 단순한 목적지향의 이동수단이 아닌 미적인 체험의 수단으로 이해하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즉, 보행체험의 중요성은 도시가로공간을 미학적 사색이 가능한 곳으로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과 같다.

2. '픽취레스크'의 미적 개념과 경관적 특성

기존의 기하학적인 정형식 정원이 비판받으며, 불규칙하고 다양한 속성으로 대표되는 풍경식 정원으로서의 변화는 18세기 말 '픽취레스크'가 이론으로 자리잡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18세기 영국 '풍경식 정원' 양식에서 등장한 '픽취레스크(Picturesque)'의 미적 개념은 '공간의 경험(experience)'을 중요시하였으며, 흥미로운 공간 조성을 위해서 '공간의 다양성(variety)'을 추구하였다(마순자, 2000). '픽취레스크'의 경관적 특성은 '시각적 체험의 다양성'·'공간의 한정'·'비대칭성'·'공간의 중첩'으로 도출되었다. '픽취레스크'의 개념은 추후 조경양식뿐 아니라 동시대의 도시공간 구성에도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김한배, 1998). '픽취레스크'가 예술을 통해 자연과의 합일(合一)을 추구하였듯이, 도시의 가로공간을 예술적 미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3. '어번픽취레스크'의 개념과 특성

'불규칙성(irregularity)'·'다양성(variety)'의 속성을 기반으로 한 '픽취레스크' 미적 개념은 19세기 도시 형태에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이는 곧 '어번픽취레스크(Urban Picturesque)'가 등장하는 배경⁴⁾이 되었다(Issacs, 2000). 이는 '픽취레스크' 개념으로 이루어진 도시 형태의 보편적인 미학이 존재하며, '어번픽취레스크'가 지니고 있는 특성은 보행자들에게 체험적 흥미를 유발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어번픽취레스크'는 도시 공간에 있어 미적 체험을 증대시키는 개념이며, 보행자 가로에서 일부 공간적 형태의 구성은 다른 보행자 가로의 구성보다 좀 더 밀도 있는 경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측면이다(Issacs, 2000). 도시 보행자 가로에서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의 형태와 특징은 표 1의 내용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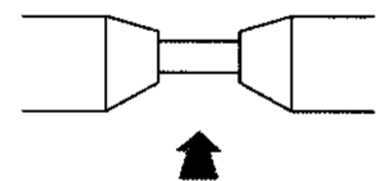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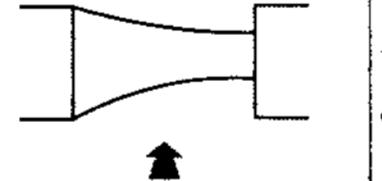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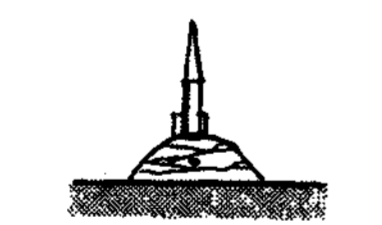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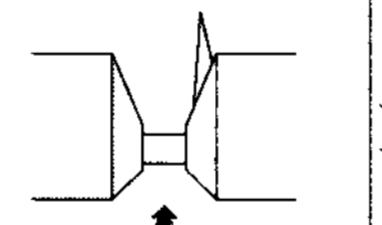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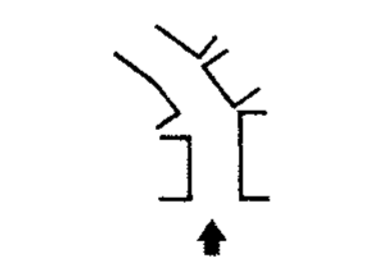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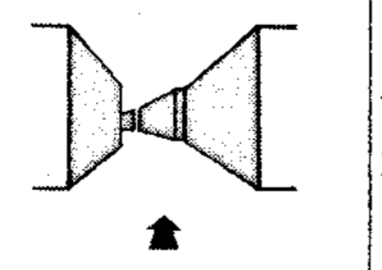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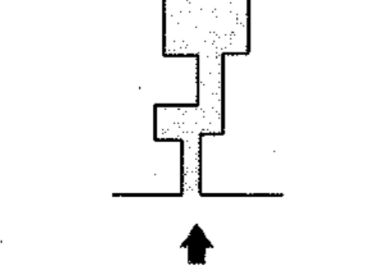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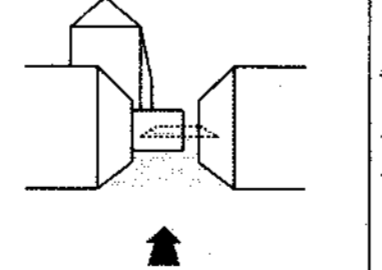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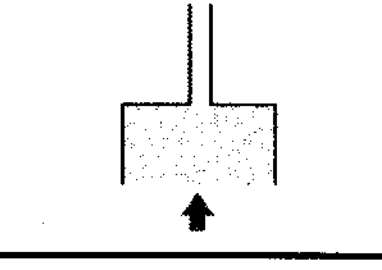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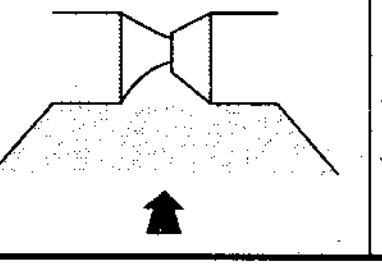
III. 대상지 연구

1. 대상지 선정과 조사방법

1) 대상지 선정

대상지는 서울의 보행자 위주 가로 중에서 '어번픽취레스크' 공간 속성에 부합하는 불규칙하고 공간의 변화가 다양하며, 자연발생적인 가로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

표 1.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의 형태와 특징

구분	형태		특징
위요된 공간으로 제한된 경관 (Enclosure)			명백한 시각적 차단을 야기하는 폐쇄의 경우와는 달리 둘러싸인 낮은 울타리나 기둥에 의해 둘러싸이므로 폐쇄감이 완화된다.
랜드마크적 요소 (Landmark)			도시를 통과하다 방향을 잃는 경우, 특별한 형태가 다른 지역으로부터 보여진다면 이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길을 따라 배치된 입면의 통일성 (Facade Unity)			디테일과 표면은 복잡할지라도 전체적인 입면의 구성이 유사하게 구축되어 있다면 가로공간을 더 일체화된 속성으로 인지하게 해준다.
공간의 다양성 (Variety of Space)			좁은 가로에서 더 넓은 공간으로 갑작스럽게 진입하거나 더 넓은 공간으로 다가가기 전에 접근하는 길이 좁아진다면 두 공간사이의 반대의 경험을 준다. 이는 공간체험을 더욱 흥미롭게 하며 해방감을 주기도 한다.
시작점과 끝점 혹은 중간점 (Start & End Point)			가로의 소광장 혹은 중앙광장 등은 공간의 시작과 끝 혹은 중간기점을 알려주어 가로의 성격을 분명히 해주며, 공간의 다양한 체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자료: McCluskey, J., 1997. 필자 재작성

된 장소는 덕수궁길·인사동길·명동길이다.

2) 조사방법

조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우선, '어반픽취레스크'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물리적 측면의 조사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실내조사와 실외조사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흥미로운 혹은 흥미롭지 않은 공간에 대해 글과 스케치, 가로에서 나타나는 '어반픽취레스크'적 특성의 표시 및 보행체험 흥미도를 조사하였다. 이로써 '어반픽취레스크'적 특성이 보행체험의 흥미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와 가로별로 나타나는 '어반픽취레스크'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일반보행자 그룹을 대상으로 가로의 방문목적·이용행태 등의 활동적 측면을 조사하고, 물리적 측면과 활동적 측면의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보행체험 흥미도를 조사하였다. 세 번째, 가로의 물리적 측면과 활동적 측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종합관계 분석을 위해 전문가 그룹의 심층인터뷰가 이루어졌다.

2. 대상지 조사결과

1) 가로의 물리적 측면

이 조사는 도시공간의 디자인 경험이 있는 조경·건축·도시 전공의 대학원생 20명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 22일(8명), 11월 15일(7명), 22일(5명)에 실시되었다. 전문가 그룹은 세 개의 사례 대상지를 직접 체험하며, 이미지 맵에 그 특성을 표시하였고, 설문에 응하였다.

(1) 가로별 '어반픽취레스크'적 특성

가로별 '어반픽취레스크'적 특성은 공간의 변화가 다양할수록 우세하게 나타났다(그림 2 참조). 덕수궁길에서 5가지 특성 대부분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인사동길은 '시작과 끝점', '공간의 다양성' 그리고 '입면의 통일성'이 많이 나타났으며, 명동길은 대부분의 특성이 미약하게 나타났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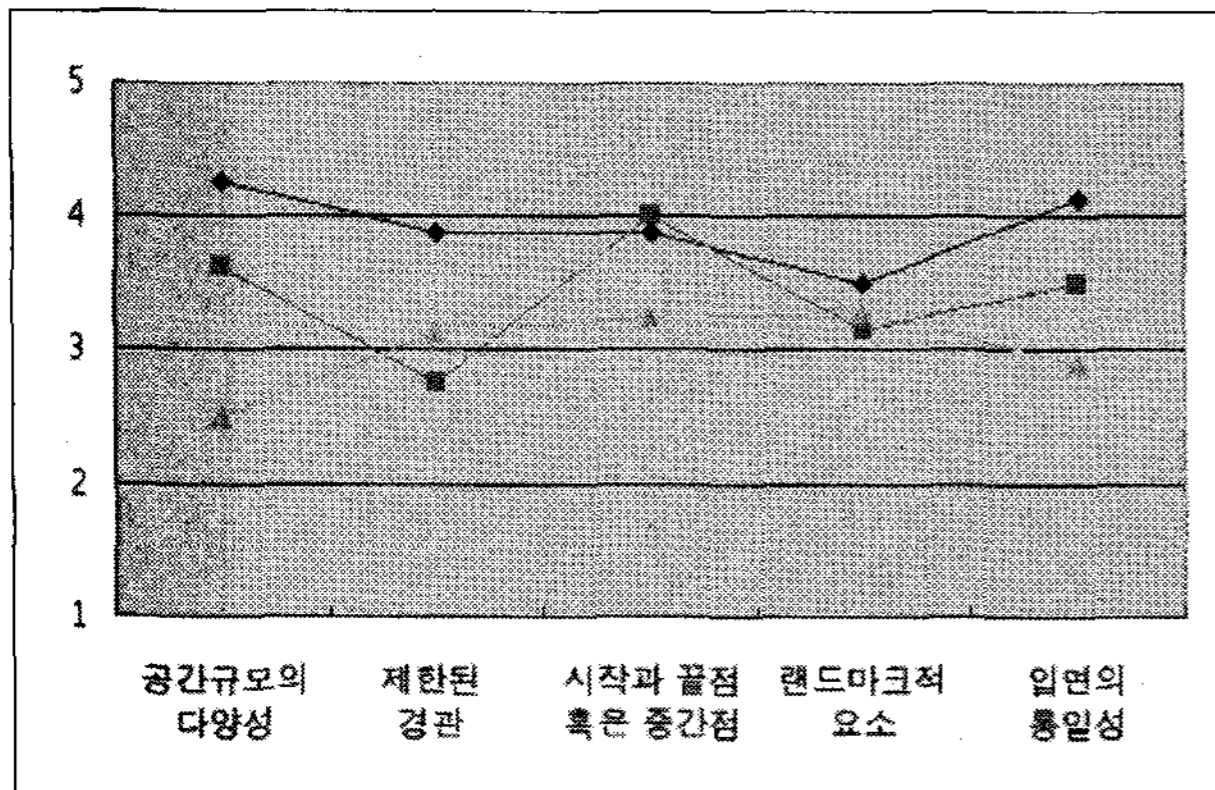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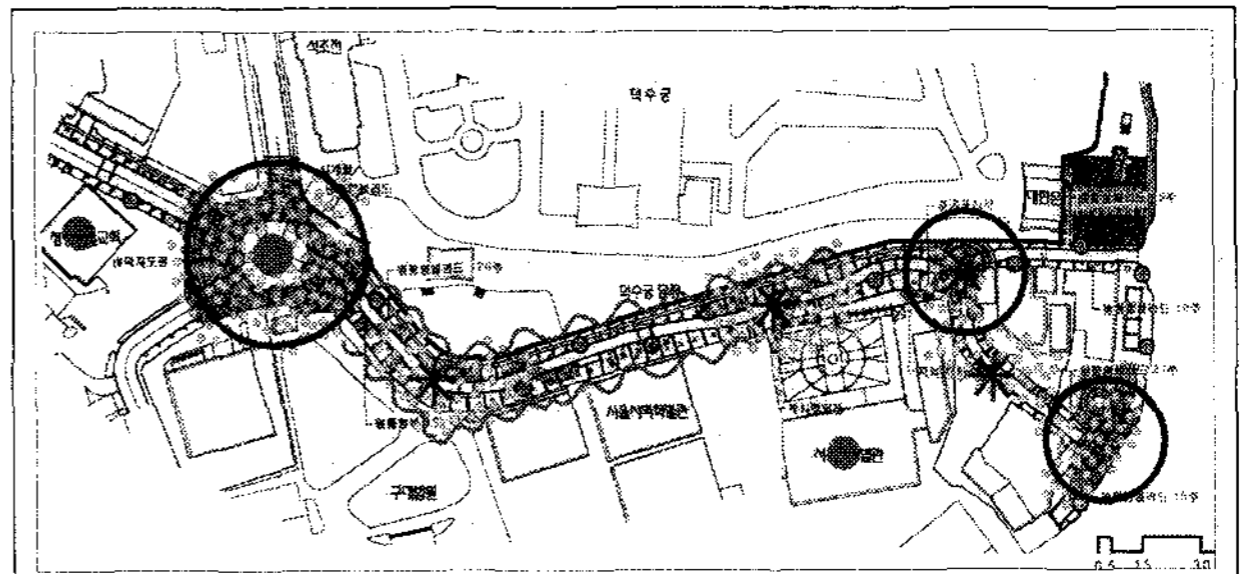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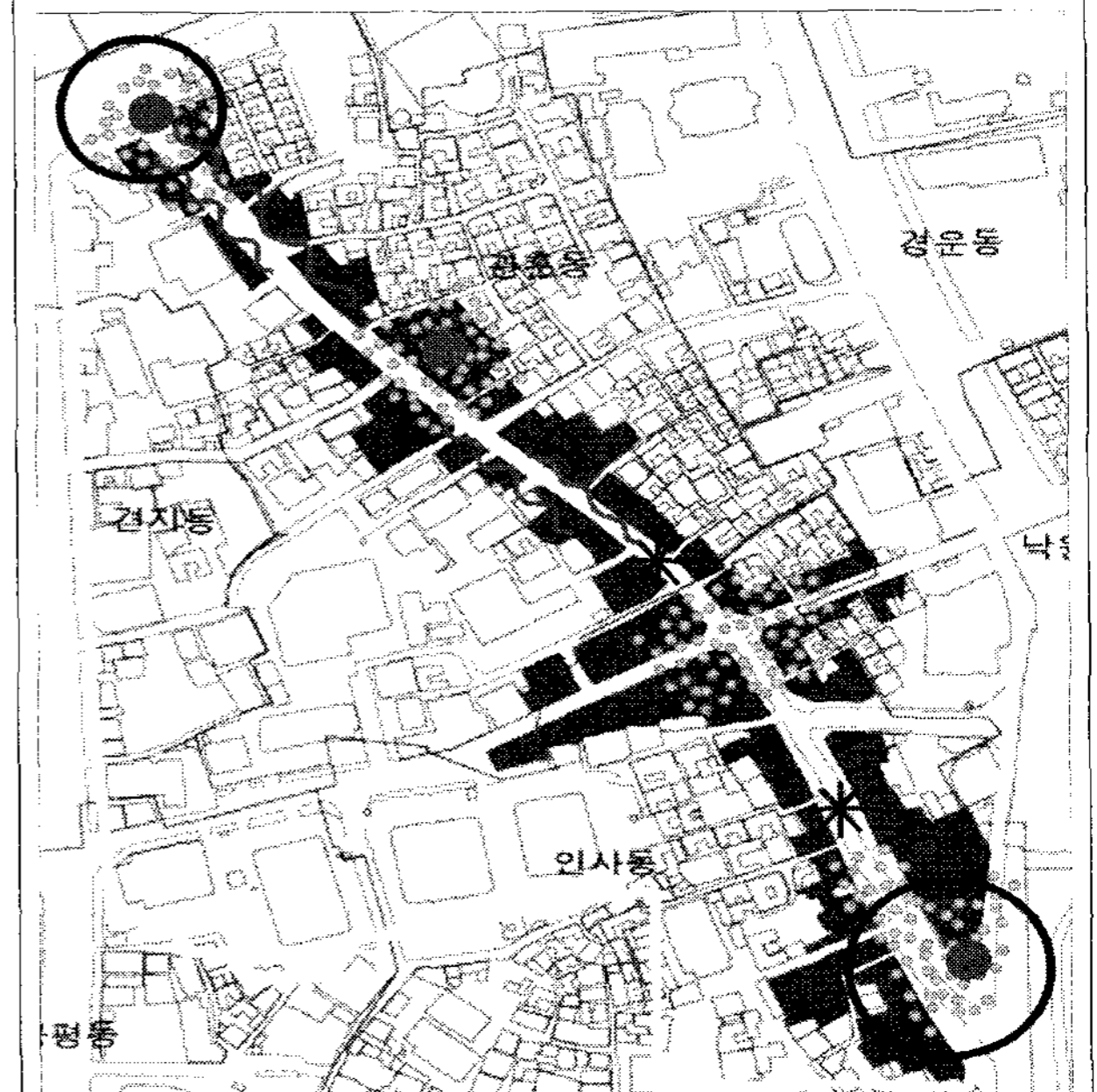


그림 1. 가로별 나타나는 '어반픽취레스크'적 특성(5점 리커트척도)
범례: ◆ 덕수궁길 ■ 인사동길 ▲ 명동길



a: 덕수궁길에서 나타나는 '어반픽취레스크'적 특성



b: 인사동길에서 나타나는 '어반픽취레스크'적 특성



c: 명동길에서 나타나는 '어반픽취레스크'적 특성

그림 2. 가로별 나타나는 '어반픽취레스크'적 특성

범례: * 제한된 경관 ● 랜드마크적 요소
○ 시작점과 끝점 ◻ 공간의 다양성
~ 입면의 통일성

(2) 보행체험 흥미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내조사와 실외조사의 보행체험 흥미도 역시 덕수궁길-인사동길-명동길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가로의 불규칙하고 다양한 속성에 따라 보행체험의 흥미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어반픽취레스크'적 특성이 많이 나타날수록 보행체험 흥미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2. 보행체험 흥미도 전·후 비교(5점 리커트척도)

구분	실내조사(체험 전)		실외조사(체험 후)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덕수궁길	3.75	0.5	4.2	0.447
인사동길	3.2	0.837	3.8	0.447
명동길	2.2	0.447	2.4	0.548

2) 가로의 종합적 측면 I

이 조사는 실제 가로를 체험하고 있는 일반보행자를 대상으로 2007년 11월 5일~12월 5일 3차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가로별 40명씩 총 120명에게 설문하였다.

(1) 방문목적과 이용행태 (활동적 측면)

가로의 방문목적과 이용행태⁵⁾ 등 활동적 측면에 대한 내용은 그림 3과 표 3의 내용과 같다. 인사동길과 명동길의 방문목적은 대부분이 고르게 보통의 수준(3점)을 넘어서나, 덕수궁길은 '가로분위기', '문화공간관람'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가로별 이용행태의 빈도수는 인사동길(142)-명동길(125)-덕수궁길(88)의 순서로 덕수궁길의 이용행태 빈도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로변의 활동적인 요소의 다양함 혹은 그것의 유무에 따라 이용행태가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보행체험 흥미도 (물리적/활동적 측면)

가로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방문목적과 이용행태 등 활동적 측면을 포함하는 보행체험 흥미도를 조사한 결과, 인사동길(3.75점)-명동길(3.18점)-덕수궁길(2.63점)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표 4 참조). 이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살펴본 물리적인 측면의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서 이용행태의 빈도수 순서와 동일하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일반보행자 그룹은 가로의 물리적인 측면보다는 활동적 요소에 더 영향을 받아, 보행체험의 흥미도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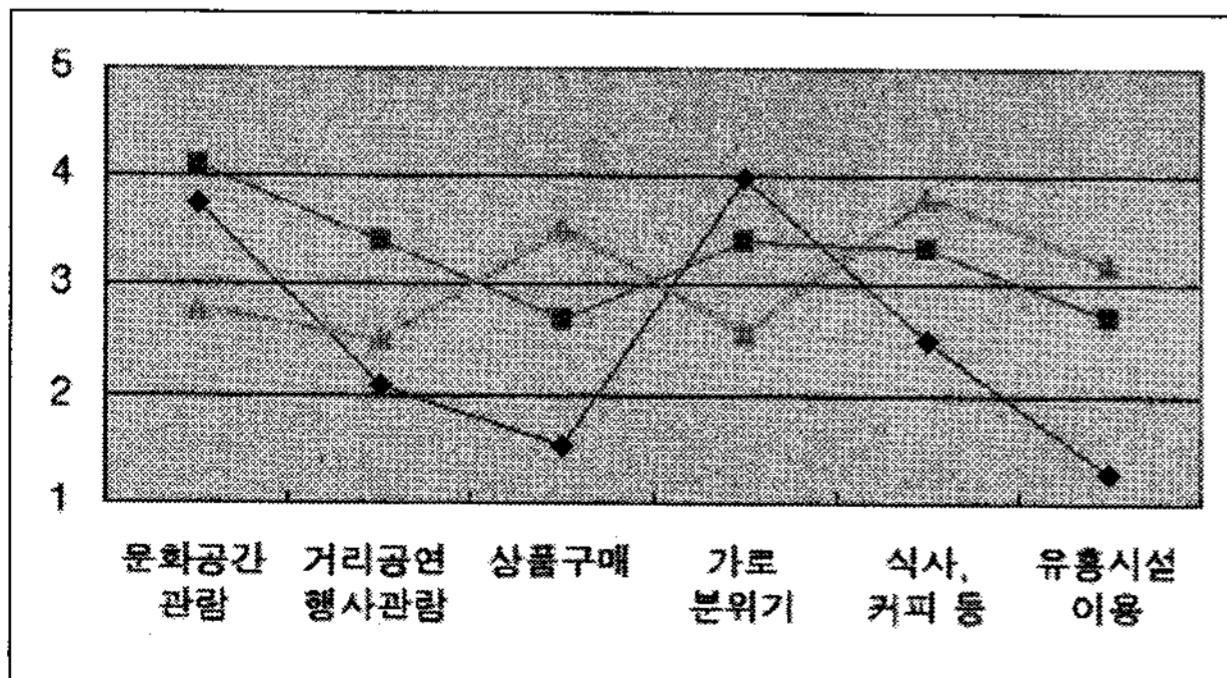


그림 3. 가로별 방문목적(5점 리커트척도)

범례: ●-○ 덕수궁길 ■-□ 인사동길 ▲-△ 명동길

표 3. 가로별 이용행태(항목의 빈도수 측정, 최고값 40)

구분	덕수궁길		인사동길		명동길	
	빈도수	퍼센트	빈도수	퍼센트	빈도수	퍼센트
단순통과목적의 걷기	26	29.55	20	14.08	16	12.80
가로 내 시설 이용목적의 걷기	8	9.09	18	12.68	16	12.80
구경목적의 걷기	23	26.14	35	24.65	20	16.00
가게에서 물건 구매하기	0	0.00	11	7.75	31	24.80
가로에서 대화하며 휴식하기	19	21.59	14	9.86	12	9.60
멈추어 서서 구경하기	7	7.95	17	11.97	11	8.80
앉아서 구경하기	4	4.55	12	8.45	8	6.40
가로좌판에서 물건, 식료품 구매하기	0	1.14	15	10.56	11	8.80
합계	88	100	142	100	125	100

표 4. 보행체험 흥미도(5점 리커트척도)

구분	일반보행자 그룹	
	평균값	표준편차
덕수궁길	2.63	0.540
인사동길	3.75	0.707
명동길	3.18	0.675

3) 가로의 종합적 측면 II

가로의 형태에 관한 물리적 측면과 활동적 측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종합관계 분석을 위해 전문가 그룹의 심층인터뷰를 하였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덕수궁길은 불규칙하고 공간의 변화가 다양한 가로 경관의 모습이 보행자로 하여금 미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키나, 가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통과이동의 수단으로서가 아닌 보행자 활동을 유발하는 요소(거리전시, 전통적 요소의 볼거리·먹거리 등)의 도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인사동길에서는 가로의 형태뿐 아니라 가로의 활동적 측면의 요소도 중요하게 작용하여 보행체험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사동길이 덕수궁길에서 보이는 가로의 다양한 형태변화의 속성과 명동길에서 보이는 다양한 활동적 측면의 요소(오락시설, 상점, 먹거리 등), 그리고 가로의 독특한(전통적인) 분위기 등이 복합되어진 가로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길은 상업위주의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매력적인 가로 형태보다는 활동적인 측면 요소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의 용도 특성상 보행자가 가로공간을 인지하는

데 있어 상업점포 용도 등의 전달력이 높은 요소(간판, 노점상,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 소음 등)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과 제언

본 연구는 서울의 도시 보행자가로를 대상으로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에 따른 물리적 측면과 활동적 측면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시 가로설계에서 '어번픽취레스크' 개념의 유용함과 적용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시각적 환경을 중시한 물리적 측면에서 도시 보행자가로를 살펴본 결과,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이 많이 나타날수록 보행체험의 흥미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일반 보행자 그룹을 대상으로 활동적 측면을 포함하여 가로를 분석한 결과, 물리적인 측면만 조사한 경우와는 다르게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의 영향보다는 가로의 활동적 측면의 요소가 보행체험의 흥미도에 더 영향을 주었다. 셋째,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가로를 분석한 결과, 도시 환경의 물리적인 형태는 활동적인 요소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로의 보행체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현대 도시의 보행자가로에서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로의 형태와 더불어 가로상황에 맞는 활동적 측면의 요소가 보완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어번픽취레스크' 개념이 가장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의 보행자가로는 상업가로보다는 문화가로가 더 적합할 것이다. 대상지 연구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명동길과 같은 상업가로는 거리의 불규칙한 형태의 시각적인 특성보다는 상점이나 상품의 전달 목적이 중요한 가로이고, 가로의 형태와 간판 등의 요소들이 동시에 인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로의 복잡한 형태가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인사동길과 같은 문화가로는 사람들의 활동이 일반 상업가로와는 다르게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가로의 활동과 더불어 미적인 체험이 가능한 장소라고 볼 수 있다. '픽취레스크'가 미적인 개념의 공간적 표현에서 나왔듯이, '어번픽취레스크' 개념이 적용되기에는 상업가로보다는 문화가로가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대상지로 삼은 덕수궁길, 인사동길, 명동길은 가로 양옆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각적인 환경과 관련된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 자체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거리의 성격·용도 등이 유사하면서 물리적인 특성이 다른 가로를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리적인 측면과 활동적인 측면 이외에 가로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보행자 공간을 흥미롭게 구성하고, 결과적으로 보행자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가로의 유형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시마다 매우 다양한 성격의 보행가로가 있으며, 이를 규정하는 많은 주요인에 의해 다른 미학적 범주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 주 1. 물리적 측면은 기본적으로 가로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인 건축물의 스케일과 가로 폭, 가로의 형태 등 시각적(Visual) 환경과 관련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 주 2. '픽취레스크'는 18세기 한 세기를 풍미한 미적 개념이지만 '어번픽취레스크'는 하나의 이론적 틀이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니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표시를 하였다.
- 주 3. 활동적 측면은 보행자의 활동과 관련된 가로의 용도/의미/내용 등을 말하며, 이는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유발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 주 4. '어번픽취레스크' 개념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John Nash가 설계한 'Regent Street(1811)'의 곡선형 도로와 광장을 예로 들 수 있다(김철수, 1997). 또한, 이러한 사조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비엔나 출신의 Camillo Sitte(1889)와 그의 심미적 원칙에 심취한 Raymond Unwin(1901)과 Cordon Cullen(1961)은 '픽취레스크'의 공간개념을 도시공간에 대입시키려 하였다. 이들은 하나같이 도시를 활동하는 인간의 체험을 보다 다양하고 흥미롭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주 5. 이용형태의 세부적인 항목구분은 얀겔(Jan Gehl)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작성하였다.

인용문헌

1. 김철수(1997) 도시계획사. 기문당.
2. 김한배(1998) 도시환경설계의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사조에 관한 고찰 (I).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33(3): 183-202.
3. 마순자(2000) 자연, 풍경, 그리고 인간. 대우학술총서.
4. Carmona, M.(2003) Public places-urban spaces: the dimensions of urban design. Architectural Press.
5. Gehl, J.(2003) Life between buildings. 김진우, 이성미, 한민정(역). 삶이 있는 도시디자인. 푸른숲.
6. Issacs, R.(2000) The Urban Picturesque: An Aesthetic Experience of Urban Picturesque Places. Journal of Urban Design 5(2): 145-180.
7. McCluskey, J.(1992) Road Form and Townscape. Architecture Press.